

## 치유인문학과 힐데가르트의 보석치료에 관한 고찰

이은영\*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 Healing Humanities and Hildegard – Focusing on Jewelry Therapy

Eun Young Lee\*

School of Liberal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57, Orundae-ro, Geumjeong-gu, Busan, 46252, South Korea

(Received February 14, 2022 / Revised March 3, 2022 / Accepted March 14, 2022)

**Abstract Background:** ‘Here and now’ in the 21st century, what should we be thinking about in this situation where infectious diseases like COVID-19 are penetrating deeply into our lives? At this poin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concept of ‘Healing Humanities.’ **Purposes:** If the Humanities as a liberal arts education have emphasized the value of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putting it up as the slogan until now, the Humanities now should seek practical ways to realize their potentials. **Methods:** The research method was discussed centering on the literature. **Results:** This discussion centers around the medieval jewelry therapy by Hildegard von Bingen. That is, this study discusses how Hildegard presented gem therapy treatment as a pioneer in the jewelry therapy. **Conclusions:** It is meaningful that human health and diseases, which are focused on medical technology today, can now serve as a way of humanities practice, and that Hildegard’s jewelry treatment can be triggered by a breakthrough. In that sense,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legitimacy of Hildegard’s treatment to be secured as the Healing Humanities.

**Key words** Hildegard, Healing Humanities, Communication, Jewelry Therapy

**초록 개요:** 21세기 ‘지금 여기’ 우리는 covid-19처럼 감염병이 삶 속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는 ‘치유 인문학’을 힐데가르트의 보석치료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목적:** 그동안 인문학이 교양교육으로서 ‘소통과 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그 가치를 강조했다면, 이제 인문학은 잠재적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문학적 가치의 실천적 발현이라는 쟁점을 우리는 ‘치유 인문학’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 논의는 중세시대 빙엔의 힐데가르트가 강조했던 자연치료 중 한 유형인, 보석치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결과:** 힐데가르트는 인간의 질병과 건강을 잘 못된 생활습관과 생활방식 그리고 자연과 소통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결론:** 오늘날 의학기술에 치중되어 있는 인간의 건강과 질병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힐데가르트의 보석치료가 인문학적 치유의 한 가능성으로 제시되었다.

**주제어** 힐데가르트, 치유 인문학, 소통, 보석치료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우한 폐렴’은 Covid-19 이름으로 이웃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짧으면서도 길었던 그 2년! 그동안 Covid-19는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뿐 아니라 소중한 인명까지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확진자, 집콕족, 금스크 등. 이러한 ‘코로나 우울’ 현상은 학술적으로 정해진 병은 아니지만, Covid-19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울증, 무기력증, 통제 불능의 분노 등이 계속되면서 발생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일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우울 현

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소통이나 접촉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느끼는 답답함, 그리고 누구나 Covid-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와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를 의심할 수 있는 두려움과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소식과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사람 사이의 접촉에 대한 경계심 증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조건 없는 맹신 등이 해당한다.

사실 감염병이란 특정한 전문가나 관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면 사회와 경제 모두 멈추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뿐 아니라 생명을 넘어서 종교, 예술과 문학과 같은 문화적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준다. 예컨대, 페스트 이후 르네상스가 가져왔던 변화의 동력과 산업혁명을 거치고 나타난 현대화 물결에 콜레라 같은 감염병이 그 당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Snowden, 2020).

페스트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1096년에 시작된 제1차 십자군 원정은 페스트의 새로운 도화선이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여러 나라의 기사단이 당시 이슬람교 국가인 셀주크 왕조의 지배를 받던 기독교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공략에 나섰다. 이 무렵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치르다 돌아온 병사들의 짐과 옷가지에 곰취와 페스트균이 섞여 들어와 서유럽에 페스트가 창궐하게 되었다(Kim, 2014). 중세시대 의학은 2세기 로마제국 시대 이후 거의 발전이 없었다. 당시에는 병원체 개념도 없었고, 감염병에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예방법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처법은 현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한심한 수준이었다. 예컨대, 주변을 식초와 유황으로 소독하거나 환자의 옷가지나 소지품 등을 소각하는 일이 전부였다.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그 지역을 봉쇄하거나 사람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처하였다. 국가는 감염병의 성행에 특별한 대처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큰 확산을 보였던 그 당시 감염병에 대응하기에 국가나 의료인 역시 힘든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국가는 종교의식을 통해 감염병을 벗어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Kim, 2014).

그렇다면 21세기 ‘지금 여기’ 우리는 Covid-19처럼 감염병이 삶 속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고민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는 ‘치유 인문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김기봉은 그동안 인문학이 교양교육으로서 ‘소통과 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그 가치를 강조했다면, 이제 인문학은 잠재적 능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Kim, 2012).

특히 인문학의 실천적 가치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이며 근본적 성찰에서 드러내며, 우리는 이러한 인문학적 가치를 실천적으로 실현시키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문학적 가치의 실천적 발현이라는 쟁점을 당면과제인 치유 문제와 관련지어 ‘치유 인문학’(Healing Humanities)으로 접근시키고자 한다(Kim, 2012). 바로 이 지점에서 치유 인문학이라는 우리 시대의 쟁점을 철학이 어떻게 실천적 방향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지, 철학이 어떻게 인류사의 고통과 질병에 동참하면서 다만 이론학문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치유 인문학으로 정립될 수 있는지 주목하며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논의는 중세 힐데가르트 핸드폰 병언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글은 혁혁한 의학 발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던 중세시대 힐데가르트의 자연치료에, 그중에서도 보석 치료를 통해서 여전히 감염병 상황에 부닥쳐있는 상황을 넘어설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 한에서 이 글은 철학과 인문학의 관점으로 본 치유의 실천적 방안이 될 것이다.

## 본 론

### 보석치료 역사적 배경

보석의 시작은 인류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구석기 시대 보석은 조가비, 화석, 조약돌, 짐승의 뼈와 이빨 등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Fig. 1에서 확인되듯이 신석기 시대에도 지속해서 이어졌다. 그 당시 조개 장신구 등을 장수와 부, 행운의 상징으로 믿게 되었다(An, 2013).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석 유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고대문명 이전 수렵시대 장신구는 보석보다는 오히려 생존 도구로서 역할을 했다. 이후 보석이 장신구로서 역할을 했던 시기는 청동기 무덤에서 가넷류의 옥이 출토되었고, 기원전 3000년경 투탄카멘 왕의 무덤에서 라피스라줄리, 마노, 칼세도니 등으로



Fig. 1. Shell ornaments used in the Neolithic Age.

만들어진 장신구들이 출토되었다(Choi, 2017).

고대에서 보석은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터키석, 커넬리언, 사드와 같이 색이 선명하고 불투명한 보석들이 높이 평가되었으며(Jeong, 2014), 중세에서 그것은 황홀한 빛과 색채를 표현할 수 있는 사파이어, 에메랄드, 자수정, 가넷, 진주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 당시 보석은 색채와 희귀성에서 의미성을 찾기보다 오히려 질병을 회복하는 영적인 작용에 좀 더 의미가 부여되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세시대 힐테가르트가 보석치료의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힐테가르트가 보석치료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근본 사상에 관하여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 힐테가르트의 보석치료 배경과 이론

수녀인 힐테가르트는 1150년에서 1160년 사이에 전통의 술과 자연요법에 관한 연구에 몰두했다. 그녀의 의학 연구는 처음에 『피조물들의 다양한 성질들의 내적 본질』(Liber subtilitatum diversarum naturarum creaturarum)이라는 한편의 책으로 펴내졌으나, 이후 『원인과 치료』(Causa et Curae, 1957) 및 『자연학』(Physica, 1959)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Lee, 2017). 특히 『자연학 네 번째 권은 주로 보석에 관하여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힐테가르트는 보석의 생성과 25가지 보석들에 대해 그 보석이 지닌 특성 및 치유력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전해져오는 자료들과 당시 민간요법들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정홍규는 힐테가르트는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서와의 관련을 통해서 보석 효과 치료법을 재정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Jeong, 2004).

힐테가르트가 활동했던 중세는 물, 불, 공기와 땅의 네 가지 요소가 보석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힐테가르트 역시 중세 일반적 견해를 기반으로 여기에 세 가지 요소를 덧붙임으로써 자신의 보석치료 이론을 완성한다(Ha, 2010).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절과 시간 그리고 생성되는 지역이 보석 생성에 영향을 준다고 덧붙여 말한다. 즉 태양열이 작열하는 동쪽에서 보석이 생성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그 당시 보석치료는 보석을 갈아서 유동액에 담가 두었다가 마시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힐테가르트의 그것은 녹주석을 제외하고 보석을 따뜻하게 데워서 물이나 포도주에 담가 두었다가 마시도록 하거나 보석을 입에 넣는 것 그리고 아픈 곳에 올려놓는 방법이나 문지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셋째, 보석 치료법을 행하면서 기도문, 또는 주문을 외워 악령을 몰아내도록 함으로써 보석의 치유력을 발생시키고 강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Ha, 2010).

그렇다면 힐테가르트의 보석 치료법은 새로운 의학이라 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인간의 질병이란 창조주가 원하는 기능이 고갈된 것, 곧 ‘창조의 소진’을 의미하고 치유는 ‘재창조’를 의미한다.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창조와 연

관 지어 규정한다(Jeong, 2004). 즉 인간 생명력의 결핍이 인간의 질병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질병을 병리학적 과정과는 구별시켰다(Kim, 2015).

힐테가르트의 고유한 언어로 표현하면 ‘검은 담즙’이 넘쳐서 ‘푸르른 생명의 힘’(viriditas, grüne Lebensfrische), 푸르른 생명력을 압도한 것이다. 이 ‘viriditas’인 푸르른 생명력의 의미는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당시 창조계 안에 넣어 두신 온전함(Heil)을 상징한다. 반면에 질병은 원소들이 뒤죽박죽 질서 없이 혼합됨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이 병이 들면, 원소들, 공기와 물, 약초와 동물들의 자연요소가 ‘악’으로서 존재하며 도와준다. 여기에서 인간의 질병을 약으로써 도와주는 치료제는 공기와 물, 약초와 동물들 그리고 광물 등과 같은 ‘자연’에 녹여져 있으며, 이러한 자연적 요소로서 ‘악’이 그녀가 ‘온전히 싱싱하고 생명력 넘치는 동정녀’(virgo viridis sima)라고 부른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서 작용한 ‘푸르른 생명의 힘’이다(Peldmann, 2017).

그녀는 이 푸르른 생명력을 생기 있는 불꽃으로 언급하며 이에 대하여 “자연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며, 인간은 자연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한다. 즉 인간이 몸과 우주 그리고 생명력을 부여해 주는 자연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이 지구의 일부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생명력을 부여받는 자연의 요소에 불, 물, 공기와 흙이 해당한다(Strickerschmid, 2006).

이렇게 본다면 건강은 손상된 기관 하나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결합하는 데서 치유과정의 핵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연의 생명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에 건강이 좌우되며, 인간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방식과 태도, 삶의 목표를 변혁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필요하게 되면 의사는 ‘유기체로서, 전체로서의 인간’을 고려하면서 삶의 외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방 조치와 후속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Peldmann, 2017).

따라서 힐테가르트의 자연치료는 질병의 직접적 치료라 아니다. 하지만 원시사회로부터 전승되었던 그 당시 대부분 의사가 보여주는 마력이나 주술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방식과 생활 태도 그리고 음식 섭취와 같은 일상생활의 균형과 습관이 강조되고, 상처나 질병을 지닌 사람이 처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각적 질병 치유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물론 이것은 신의 창조 안에서 인간과 자연의 결합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힐테가르트의 자연치료는 한편으로는 현대의 자연치료 또는 대체의학에서 행해지는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그 유효성이 확보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체의학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단순히 약물, 외과수술 또는 질환의 치료를 위해 정통적, 의학 적 절차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과 치유에 대한 접근을 지칭

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인간 삶의 지혜 산물로서 인문학적 전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신으로부터 특별한 지식은 의학이라는 형태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왜냐하면 의학에서는 그 능력이 다 발휘되지 않을 뿐이다. 의사들은 그들의 손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많은 질병은 저절로 치유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신(神)만이 진정한 의사이니 것이다”(Porter, 1997). 이 주장에서 강조되는 점은 인간의 치유는 의학적 기술뿐 아니라, 자연과 그리고 우주 더 나아가서 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치유의 인문학으로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보석이라는 자연 물질이 배출해내는 에너지를 인간의 몸에 직접 접촉해 인간 몸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정신까지 연결함으로써 그것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데 핵심이 있다(Ha, 2010).

그런데 이러한 논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보석은 신의 창조물이다. 그런 한에서 신의 창조물인 보석, 즉 자연 물질이 인간의 몸에 접촉되고, 나아가 영혼까지 연결되어 조화와 통합을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화와 통합을 통해서 일차적으로는 인간 몸에 질병 제거라는 점을 끌어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정신적인 치유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일 이러하다면 힐데가르트의 보석치료는 둘째, 자연치료법으로서 신학적 측면이 전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셋째, 그런 한에서 그녀의 인간관은 전인적 인간관이라 할 수 있다(Peldmann, 2017). 다시 말해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세계가 상호 관련성을 논함에 있어 인간은 인간 자신을 자연에 통합된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신(神)을 전제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유함은 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 완벽하므로 내재하고 있는 자연은 인간과 상호 소통함으로써 인간이 지닌 불완전함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 힐데가르트의 건강과 질병 개념

힐데가르트 치료법의 핵심은 ‘푸르른 생명의 힘’(viriditas)이다. 라틴어인 ‘viriditas’는 생기가 넘치다, 푸르디의 ‘virere’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영어로는 ‘viridity’ 혹은 ‘greenness’로 번역되어 초록 또는 푸름의 의미로 사용된다(Peldmann, 2017). 힐데가르트는 ‘푸르름’이라는 색의 상징성을 ‘생명력’의 의미로 상징하고 여기에 ‘푸르게 하는 힘’이라는 생기를 덧붙였다. 이러한 푸르름의 상징성이 전제되기 위해서 그 근원을 신에게 두었다. 이 개념은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당시 창조계 안에 넣어 두신 온전함(Heil)을 상징한다. 질병이 원소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면, 자연이 원소들

즉 공기와 물, 약초와 동물들 안에 존재하는 약을 통해 도와준다(Peldmann, 2017). 물론 힐데가르트 치료법에 대하여 중세방식의 민간요법으로 규정하는 측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요법은 하나의 문화로서 규정되기도 하는데, 질병이 있는 환자가 의사에 맡기기보다는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물질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창조한 의료행위로서 그것을 수용한다(Oh, 2014). 물론 다수의 일반인에게서 민간요법의 생명력이 지속하며 전승되었던 이유를 찾아본다면, 우선 누구나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의약 재료라는 점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 한에서 민간요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료와 실행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토대로 문화의 한 형태로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하다면 힐데가르트의 치료법 역시 그 당시 문화의 한 형태로서 민간요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힐데가르트의 저술에서 언급된 나헤가우 지역의 여성 약초 전문가들을 통해 민간요법이 전해졌고, 중세 의학의 바탕이 된 체액과 기질에 관한 고대 학설 역시 그녀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고대의 체액과 기질에 관한 이론은 힐데가르트가 건강과 체액설을 융합함으로써 인간의 건강론을 구축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건강은 네 가지 체액(피, 점액, 검은 담즙, 붉은 담즙)과 기본 성질(뜨거움, 건조함, 축축함, 차가움)의 균형 잡힌 융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몸 안에서 체액들의 균형이 깨지면 병이 나고, 약제와 올바른 섭생으로 체액들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Peldmann, 2017).

따라서 차가운 질병은 뜨거운 약제로 치료할 수 있고, 축축한 고통은 건조한 약제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우리는 힐데가르트의 치료법과 자연적인 생활법의 융합에 주목할 수 있다. 오늘날 21세기 환경의 무서운 영향력과 무책임한 생활방식이 암과 다양한 질병의 유발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힐데가르트의 치료법은 생활방식과 생활습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간의 생명을 자연과 세계의 순환을 통해 융합시키는 생태 철학의 선구자로 평가될 수 있겠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자연물 질의 일종인 보석을 통해 어떻게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지 힐데가르트의 관점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 힐데가르트 보석치료 사례

힐데가르트가 활동했던 중세시대에는 특히 약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원석을 자연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치료를 위해 보석을 몸에 연결하거나 보석을 질병 부위에 직접 착용하게 하며 또는 몸에 보석을 지니는 직, 간접적 접촉과 상호소통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시켰다는 것이다(Jeong, 2004). 이러한 견해가 바탕이 될 수 있었던 기본전제는 신의 창조물로서 보석은 자연 일부분이라는 점에 있으며, 그런 한에서 인간의 몸과 정신은 자연

과의 상호소통을 통해서 건강이 지켜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자연 물질은 창조주인 신의 완전함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이 신의 완전함을 내재한 자연과 접촉과 교감 또는 상호소통함으로써 결국 간접적으로 신과의 교감과 상호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오늘날 4월의 탄생석으로 언급되며, 순결, 신뢰, 평화, 불변, 행복,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Ha, 2010). 다이아몬드가 가장 인기를 얻는 보석 중 하나이며,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의 전유물이었다. 다이아몬드의 어원은 ‘정복할 수 없다’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아다마스’ (adamas) 즉 무적에서 유래된다. 그런 한에서 대략 두 가지 의미로 언급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함으로써 결혼 예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왼손 약지가 심장으로 통하는 사랑의 혈관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후 다이아몬드를 결혼반지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해서 왕관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힐테가르트는 다이아몬드가 악에 대항하는 큰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질병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사람 중에는 평소 말을 잘 하지 않다가 말을 하게 되면 송곳같이 찌를 듯한 날카로움을 보이거나, 고약한 성질을 지닌 사람에게 탁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Ha, 2010).

예컨대, 화를 잘 내거나, 상당히 냉철한 사람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우울증이나 조울증 환자,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는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게 된다. 다시 말해서 언급된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입에 물고 있음으로써 다이아몬드의 에너지를 받아 악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중풍, 뇌졸중과 황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를 포도주나 물에 넣은 후 하루가 지나게 한 다음 다이아몬드를 넣었던 포도주나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다이아몬드의 강력한 에너지가 물, 포도주와 인간의 침을 통해 몸에 전달된다면,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Ha, 2010).

### 녹주석(Beryl)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하는 녹주석은 고대에 주로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던 보석이다. 유대인은 이 녹주석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앙심을 지니게 하는 성스러운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녹주석의 굴절 기능을 이용하여 안경을 만들어 냈다(Schwarz, 2017).

녹주석을 의미하는 ‘Beryllus’에서 기인한 ‘Brille’라는 단어가 안경의 의미가 있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녹주석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녹주석 착용자의 성공을 보장해 주며 오랜 결혼생활에서 부부 상호 간 애정을 유지해 준다고 믿었다.

힐테가르트는 녹주석을 중독 현상과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조화롭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Schwarz, 2017).

녹주석은 따뜻한 성분의 보석으로 3시에서 정오까지 햇빛을 받게 해서 사용된다. 독성이 있는 음식이나 음료수를 마셨을 경우 신속하게 극소량의 녹주석 분말을 물에 섞어 마시게 한다. 녹주석 분말을 혼합한 음료수를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 공복에 마시면 몸 안에 침체한 독성이 구토나 배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 또한 녹주석을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면 사람들과 쉽게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녹주석은 힐테가르트가 제시하는 다른 보석과 달리 분말 형태로 사용하게 했다.

### 에머랄드(Emerald)

에머랄드는 대기의 에너지로부터 생명의 소생을 담당하며, 인간의 약점과 무기력한 질병에 효험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보석이다(Ha, 2010). 힐테가르트는 심장이나 위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옆구리가 결리는 증상이 있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항상 착용하게 되면 보석의 온기가 몸에 전해짐으로써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또는 간질을 앓는 사람이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을 때 에머랄드를 입에 물게 하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다고 한다. 가래 현상이 심한 사람은 질 좋은 포도주를 데운 후, 빈 그릇에 얇은 천을 씌우고 그 위에 보석을 놓은 다음 따뜻한 포도주를 붓는다. 에머랄드 위에 부은 포도주에 콩가루를 섞은 다음 다시 끓여 이를 복용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자주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벌레가 물었을 때도 상처 부위에 천을 덮고 에머랄드를 놓은 후 다시 그 위를 천으로 덮고 보석이 따뜻해질 때까지 둔다. 이 치료를 사흘간 계속하면 증세가 가라앉는다고 한다. 특히 심장질환에 에머랄드 목걸이를 심장 높이 길이로 착용하여 심장 부분에 에머랄드 에너지의 힘이 전달되면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녀는 에머랄드를 치료석 중 가장 효력이 큰 보석으로 생각하기도 했다(Ha, 2010).

### 자수정(Amethyst)

2월의 탄생석인 자수정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루비와 함께 5대 보석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수정을 지니고 다녔다. 무엇보다 자수정이 숙취에서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Ha, 2010). 자수정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신화 디오니소스와 다이아나의 우화와 관련이 있다. 기원전 5세기 신화에 의하면, 레아가 헤라의 저주로 광기에 빠진 디오니소스를 치료하기 위해 치료 속성을 지닌 자수정을 선물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때부터 자수정 컵에 포도주를 마시면 술을 먹어도 지혜를 잃지 않는다고 생각했다(Hildegard, 1998). 지금도 자수정이 박힌 반지를 로마 가톨릭교회의 주교들이 끼고 포도주를 다양한 수정으로 만든 술잔에 마시는 풍습이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눈

이 흐려지면 수정을 햇볕에 따뜻하게 데워 눈 위에 올려놓는다. 수정이 지닌 에너지는 물에서부터 온 것이기 그 때문에 눈으로부터 나쁜 체액을 제거하는 효력이 있어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효능을 보인다. 목이 붓거나 멍치는 경우 역시 수정을 햇볕에 데워 수정이 따뜻해지면 여기에 포도주를 부은 후 이 포도주를 자주 마시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햇볕에 데운 수정을 아픈 부위에 대고 문질러주면 부기가 가라앉는다. 심장, 위 또는 배의 통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햇볕에 데운 수정에 물을 부어 1시간 정도 놓아두었다 꺼낸 후 그 물을 자주 마시면 심장이나 위 또는 배의 통증이 사라진다고 강조한다(Hildegard, 1998).

오늘날 지수정을 치료에 이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모 한의원에서는 ‘지수정 왕뜸’으로 신체 오장육부(소화기, 배뇨 생식기, 단전 등) 혈 자리를 따뜻하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화 기능, 배뇨 생식기, 단전 등 혈 자리를 직접 자극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 체온을 높여서 전신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 결 론

Covid-19처럼 감염병이 삶 속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는 ‘치유로서 인문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세시대 힐데가르트의 자연치료법의 한 유형인 보석치료를 통해서 자연 물질이 인간의 몸과 정신에 어떻게 치유로서 접근될 수 있는지 논의하는 데 그 목표가 있었다. 그동안 인문학이 교양교육으로서 ‘소통과 융합’을 강령으로 내세우며 그 가치를 강조했다면, 이제 인문학은 잠재적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인문학의 실천적 가치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 성찰에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인문학적 가치를 실천적으로 발현시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문학적 가치의 실천적 발현이라는 쟁점을 우리는 ‘치유의 인문학’으로 드러낼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 강조되는 힐데가르트의 보석치료는 의학적인 치료법으로 규정될 수 없으나, 의학적 치료와 함께 인간의 질병 치료를 위해 보완하는 치유법인 대체의학으로 그 의미를 드러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힐데가르트에서 건강은 손상된 기관 하나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결합하는 데서 건강과 치유

과정의 핵심이 존재한다.

즉 인간의 질병과 건강을 잘못된 생활습관과 생활방식 그리고 자연과 소통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의학기술에 치중된 인간의 건강과 질병이 이제 인문학적 실천 방안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바로 힐데가르트의 보석치료가 하나의 돌파구로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References

- An, D.Y. 2013. All about jewelry. Daewonsa, Seoul.
- Choi, J.I. 2017. A somatic psychological study on therapeutic effect of gem. Dongbangmunhwha University, Seoul.
- Ha, K.S.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gemstone therapy by Hildegard on elderly woman's mental stat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Hildegard, v.B. 2012. World and human. All That Contents Pub., Daegu.
- Hildegard, v.B. 1998. Physica. translated from the latin by Priscilla Throop. Healing Arts Press, USA.
- Jeong, H.G. 2004. Hildegard of Bingen. Purunpyeonghwa, Seoul.
- Jeong, S.J. 2014. Meaning and role of gemstone in contemporary art jewelry. Res. Basic Sculpt. 15(2): 497-505.
- Kim, G.B. 2012. Humanities of healing. Philosophy and Reality, Seoul: 37-48.
- Kim, Y.M. 2007. Buddhism and the culture of epidemic healing during Goryeo Dynasty. Bull. Ewha Inst. History 34: 123-160.
- Kim, J.C. 2015. Heidegger's Conversation with the psychiatry. Modern Europ. Philos. Res. 39: 31-73.
- Oh, J.M. 2014. Present days examples of traditional home remedies. Unific. Human. 57: 259-284.
- Lee, E.Y. 2020. Medieval female-Doctor Hildegard: was she a natural therapist or a magician? Kor. Feminist Philos. 34: 35-66.
- Peldmann, C. 2017. Bingen von Hildegard. Bundo, Oegwhan.
- Porter, R.S. 1997. Medicine: A history of healing. The Ivy Press, Brighton.
- Schwarz, A.A. and R.P. Schweppe. 2017. Die Heilstenine der heiligen Hildegard. Darunwoori, Seoul.
- Snowden, F.M. 2020. Epidemics and Society. Munhaksasang Pub. Paju.
- Strickerschmid, H. 2006. Bingen of Hildegard : Healing of body and mind. Purunpyeonghwa, Seoul.